

제목 중국, 2025년 2/4분기 경제성장률 5.2%

1

발표 내용

- 중국의 **2025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5.2%**로, 중국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기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7.15일, 국가통계국)
 - **명목 GDP**는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34조 1,778조위안을 기록
 - **전기대비** 성장률(계절조정계열)은 **1.1%** [25.1/4분기: 1.2%]
 - 한편 올해 **상반기 실질GDP 성장률**은 **5.3%**를 기록
- 산업별로는 **1차산업**(1/4 3.5% → 2/4 3.8%) 및 **3차산업**(5.3% → 5.7%)은 성장률이 높아졌으나, **2차산업**(5.9% → 4.8%)은 성장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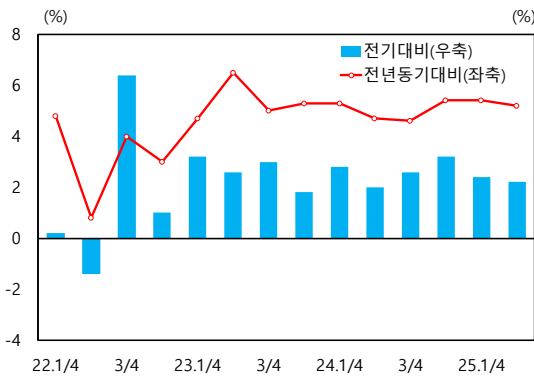
GDP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2023	2024	2023			2024				2025	
			2/4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전기대비)	5.4	5.0	6.5 (1.3)	5.0 (1.5)	5.3 (0.9)	5.3 (1.4)	4.7 (1.0)	4.6 (1.3)	5.4 (1.6)	5.4 (1.2)	5.2 (1.1)
1차산업	4.1	3.5	3.7	4.2	4.2	3.3	3.6	3.2	3.7	3.5	3.8
2차산업	4.4	5.3	4.9	4.3	5.1	6.0	5.6	4.6	5.2	5.9	4.8
3차산업	6.3	5.0	7.9	5.6	5.7	5.0	4.2	4.8	5.8	5.3	5.7
명목GDP ¹⁾	4.9	4.2	5.7	4.1	4.3	4.2	4.0	4.1	4.6	4.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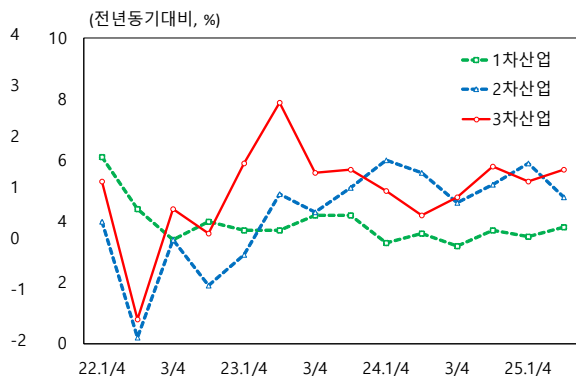
주: 1)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명목GDP 금액을 토대로 자체 시산

GDP 성장률



자료 : 국가통계국, WIND

산업별 성장률



자료 : 국가통계국, WIND

□ 한편 최근 주요 경제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6월 생산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투자 및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

○ 공업생산(5월 5.8% → 6월 6.8%)은 전기가스수도업(2.2% → 1.8%)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광업(5.7% → 6.1%)과 제조업(6.2% → 7.4%)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증가세가 확대

— 서비스업 생산(6.2% → 6.0%)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 고정투자(누계기준, 3.7% → 2.8%)를 보면 부동산개발투자(-10.7% → -11.2%)의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제조업투자(8.5% → 7.5%)과 SOC투자(5.6% → 4.6%)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 소매판매(6.4% → 4.8%)는 상품판매(6.5% → 5.3%) 및 외식업판매(5.9% → 0.9%)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며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품목별*로는 가구,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판매 증가세가 둔화

* 주요 품목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5월 → 6월) :
 (가구) 25.6% → 28.7%, (화장품) 4.4% → -2.3%, (통신기기) 33.0% → 13.9%,
 (자동차) 1.1% → 4.6%, (가전제품) 53.0% → 32.4%, (의류) 4.0% → 1.9%

2025.6월 주요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1.6월	22.6월	23.6월	24.5월	6월	25.4월	5월	6월
공업 생산	8.3	3.9	4.4	5.6	5.3	6.1	5.8	6.8
(광업)	0.7	8.7	1.5	3.6	4.4	5.7	5.7	6.1
(제조업)	8.7	3.4	4.8	6.0	5.5	6.6	6.2	7.4
(전기가스수도)	11.6	3.3	4.9	4.3	4.8	2.1	2.2	1.8
서비스업 생산	10.9	1.3	6.8	4.8	4.7	6.0	6.2	6.0
투 자 ¹⁾	12.6	6.1	3.8	4.0	3.9	4.0	3.7	2.8
(SOC)	7.8	7.1	7.2	5.7	5.4	5.8	5.6	4.6
(제조업)	19.2	10.4	6.0	9.6	9.5	8.8	8.5	7.5
(부동산개발)	15.0	-5.4	-7.9	-10.1	-10.1	-10.3	-10.7	-11.2
소매판매	12.1	3.1	3.1	3.7	2.0	5.1	6.4	4.8

주 : 1) 누계 기준
 자료 : 국가통계국

2 **현지평가 및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2/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5.2%)이 미국의 무역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5.4%)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시장예상**(5.1%)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

○ 지출부문별 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비가 이번 분기의 성장을 견인**한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기여율이 하락**

— 다만, 소비가 정책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가계 소비성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소비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소비 촉진, 가계 소득여건 개선 등 추가 정책 강화가 필요(民生证券, 广开首席产业研究院)

* 가계 소비성향(4개 분기 이동평균 기준, %):
(17~19년 평균) 70.5% → (24.2/4) 68.7 → (3/4) 68.4 → (4/4) 68.3 → (25.1/4) 68.2 → (2/4) 68.2

GDP 기여율(% , %p) ¹⁾	2024				2025		
	1/4	2/4	3/4	4/4	상반기	1/4	2/4
실질 GDP	5.3	4.7	4.6	5.4	5.3	5.4	5.2
최종소비지출	74.1 [3.9]	47.9 [2.3]	29.8 [1.4]	29.7 [1.6]	52.0[2.8]	51.7[2.8]	52.3[2.7]
총자본형성	11.4 [0.6]	40.6 [1.9]	25.6 [1.2]	24.5 [1.3]	16.8[0.9]	8.7[0.5]	24.7[1.3]
순수출(=수출-수입)	14.5 [0.8]	11.5 [0.5]	44.6 [2.1]	45.8 [2.5]	31.2[1.7]	39.5[2.1]	23.0[1.2]

주 : 1) []내는 GDP 기여도

○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1/4분기 0.8%p → 2/4분기 1.3%p)는 전분기에 비해 확대되었는데, 이는 관세 충격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심화, 여전히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저물가 상황이 심화된 데 기인 (Morgan Stanley)

* 유효수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누적 기준, 2/4분기 -1.0%)은 1/4분기(-0.8%)에 비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으며,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하반기 GDP 성장률**은 고관세 영향, 내수 위축과 그에 따른 생산 감소, 소비재 교체 지원 등 기존 정책 효과의 약화 가능성,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가능성**(中信证券, Morgan Stanley)

-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미국의 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유효수요 부족, 부동산 시장 부진 심화,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이 성장 경로상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
 - 대외적으로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 진척 상황, 환적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 등에 따라 **관세 압력이 가중될 여지**가 있으며, 중국의 수출 다변화 움직임이 무역상대국과의 경제·통상 관계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
 - 경제가 심각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경우 기존 정책수단을 동원한 긴급대응, 추가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충격을 상쇄하고 경기 안정화를 도모할 전망
- 한편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의 시급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당분간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구조개혁, 부동산시장·고용·기업 안정** 등에 대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Goldman Sachs, J.P.Morgan, 中信証券 등)